

『기독교세계관학술
동역회 발표자료』

상고대 동양 형이상학의 형성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

2015년 5월 30일

주 시 영

목 차

<요 약>

- I. 시작하는 말
- II. 상고대 인간 삶의 강령은 무엇이었나?
- III. 상고대의 형이상학은 어떤 내용인가?
 - 1. 역易은 무엇인가?
 - 2. 역이 포괄하는 형이상학 요소는 어떤 것들인가?
 - 3. 기타 : 오행·기·십간십이지
- IV. 맺는 말

<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상고대上古代 형이상학의 형성과정과 후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여기서 형이상학이란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또는 주재자를 의미한다. 이는 상고대 사람들이 개발해낸 천문, 지리와 정치, 경제 등의 제도·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형이상학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변천되어왔다. 그에 따라 이를 상고대, 고대, 송나라 이후로 나누어 살펴봄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국 상고대는 기원전 2400년경부터 기원전 771년까지이며, 왕조로는 오제五帝, 하夏나라, 상商나라, 그리고 주周나라의 도읍을 동쪽으로 옮기고 춘추春秋시대로 접어든 때 이전까지이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삶에서, 특히 통치자들이 가장 힘들어 했고 중요하게 다루었던 일은 자연의 변화와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 위험을 극복하는데 에서 삶의 강령들이 생겼다. 그것들에서 형이상학 요소들을 찾아본다.

첫째, 홍수 등 자연재해로 부터 오는 위험극복과 관련하여, 상고대 사람들은 그 위험을 다음 방법으로 대처했다.

1), 자연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서 대응했다. 밤과 낮은 순환하면서 계절을 변화시켰고, 계절의 변화는 기후를 변화시켜 홍수, 추위 등으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사람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연변화의 법칙을 읽고 표시할 수 있는 천문역법과 그에 관련한 음양, 오행, 십간십이지 등을 개발했다.

2), 자연과 조상 등에 의지하고 기원했다. 상고대 사람들에게 자연환경은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대상들은 산, 강, 바다, 땅, 하늘(공중) 등이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숭배대상으로 삼아 각종 신으로 섬겼다. 또한 그들은 자연재해 등을 막는데 기여했던 조상들도 신으로 섬겼다.

둘째,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위험극복과 관련하여, 역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했다.

1), 통치자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 선정을 베풀어야 했다. 그들은 우선 백성들을 자연재해와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따르고 단합했으며, 외부부족들까지 물러와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백성이 이탈했고, 통치권자에게 도전해왔기 때문이다.

2), 통치자들은 하늘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자임을 강조했다. 통치자들은 자신의 통치행위가 하늘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것임을 내세웠다. 인간으로서의 통치행위는 권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치자자신을 하늘의 아들로 격상시켜야했다. 이에 따라 통치자들은 하늘의 뜻에 맞게 통치해야함은 물론 그 뜻에 부합되는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상 자연의 변화와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위험극복과 관련하여, 상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상제上帝)이었다. 하늘은 자연변화와 인간을 삶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자연변화와 인간의 삶을 주재하

는 그의 뜻을 알아내는 일이 필요했으며, 그에 따라 발전한 것이 점占이었다. 점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동물의 뼈를 불에 구어 나타난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복卜’이었고, 다른 하나는 풀의 한 종류인 시초蓍草를 이용하여 얻어진 숫자를 근거로 판단하는 ‘점占’이었다.

그 점을 치는 데에는 이론과 방법이 필요했다.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 『역경易經』이었다. 역易은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해(日)와 계속 변화하는 달(月)의 합침을 상징하며, 우주만물과 그 변화를 대표하는 천·지·인 ‘삼재三才의 도’를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여 역은 형이상학적 존재인 하늘의 뜻을 알아내는 기능을 하였고, 그것은 태극, 음양, 도사상 등에 기초를 두었다.

첫째, 태극太極은 역의 최초 구성요소이며, 세상 길흉을 결정하는 주체인 팔괘의 근원이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며,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는 것이다.

둘째, 음양陰陽은 위에서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의兩儀’는 음양을 지칭한다. 음양은 해와 달의 변화, 즉 낮과 밤의 변화를 상징한다. 밤낮의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천지만물을 생·장·수·장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셋째, 도道는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 형이상자라는 것을 도라고 한다(是故形而上者謂之道)”라고 한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도는 음양의 대표자인 밤과 낮 그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밤이 왔다가 지나가면 낮이 왔다가 지나가고 이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 것이다. 그러한 원인내지 원리를 도라고 한 것이다.

또한 상고대에는 역 이외에 오행·기·십간십이지 등의 형이상학 요소를 지닌 사상들이 있었다.

첫째, 오행五行사상은 천지만물과 그 작용 등을 그 속성에 따라 물·불·쇠·나무·흙의 5가지 성질로 분류한 것이다. 오행의 형이상학 요소는 이들이 상호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원리’로 작용하며, 만물을 변화케 하는 계절을 나타내는 데에 있다.

둘째, 기氣의 개념은 음양과 오행보다 나중에 발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의 개념이 확대되어 만물을 생성·변화하게 하고, 아울러 물질의 최초 원소였다.

셋째,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는 천문역법을 나타내는 수단이었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구분을 극복하고 이들에 대해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그 사상이 단순한 역법수준에서 발전하여 기의 성질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음양과 오행의 값을 표시하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상고대에 형성된 형이상학으로서의 하늘사상은 정치변화 등에 따라 ‘상제上帝’에서 ‘천天’으로 약화되긴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이외의 요소들도 후대에 도가의 도 사상, 음양가의 기·음양 사상 등의 형이상학으로 발전했으며, 후대의 정치, 종교, 교육, 의술, 천문, 문화사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 시작하는 말

오늘날 사람들은 첨단 과학문명의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옛날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금년은 ‘양띠 해’, ‘청양靑羊’이니 하는 등으로 그 해의 운세를 말한다. 그들은 태양력을 사용하면서도 음력과 십간십이지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음력과 십간십이지 등을 이용하여 결혼식, 이사 등 중요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날짜를 찾아내고, 운명, 사주, 궁합, 성명, 풍수 등으로 미래의 길흉을 예측해내려 하고 있다. 또한 아픈 사람들 중에는 첨단기술과 시설을 갖춘 병원을 제쳐두고 한방에서 침과 뜸, 한약으로 치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

한편 현대 대부분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통치자를 국민이 선출하고, 그 통치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통치자들을 후임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가 직무수행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한 다음에 선출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통치자들은 천재지변 등 자연현상을 천심, 즉 민심의 변화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현상들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과연 그들 사상과 제도는 어떤 이점을 지니고 있을까? 아직도 사람들이 음력과 십간십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그것들이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 이외에 ‘기의 값’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한방치유선택은 ‘기와 음양·오행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의 정치제도와 관행이 특이한 것은 ‘천(하늘) 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사상의 중심에는 앞날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易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들 역 사상 등은 언제 어떻게 해서 오늘날까지 발달·유지되어 왔을까? 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중국 상고대 인들이 살았던 곳의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그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 둘째,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셋째,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삶을 지켰을까? 이 여건들이 각 사상과 제도를 만들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대표가 ‘천 사상’과 ‘역 사상’이었다. 이들 사상은 고대 중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천은 하늘에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자였으며, 통치자인 왕을 선정하는 자이기도 했다. 역은 천(하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이론과 방법으로서 태극, 음양, 도 사상과 역법曆法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역과 관련하여 『계사전』은 “역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 근원을 안다”는 천하의 준칙으로 설명하였고, 도에 대하여는 “‘형이상’이라는 것을 ‘도’라 하고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형이상자(이하 ‘형이상학’이라한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형이상학이란

자연변화와 인간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이다. 그 원리에는 “위로는 천문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펴 눈에 보이는 것 뿐 만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자연의 질서를 지배하는 보편적 원리 또는 주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이상학 또는 그 요소를 지닌 천, 역, 도, 음양, 오행, 기 십간십이지 등의 제도와 사상들은 중국 주나라가 도읍을 동쪽으로 이주한 기원전 771년 이전에 형성되었다. 그 이후 주나라는 쇠퇴해지면서 춘추·전국시대로 들어섰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아 중국의 문화사상은 오히려 꽃을 피웠다. 그것들을 대표한 것이 육가(六家)이었으며, 그중에서 상고대 형이상학을 계승 발전시킨 것들은 유가의 천사상, 도가의 도 사상, 음양가의 음양사상 등이었다. 그 후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고, 뒤이어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에 이르러 다시 중국의 사상이 꽃을 피웠다. 그러나 그 근원은 역시 상고대에 형성된 형이상학에 있었다. 이렇게 중국의 형이상학은 상고대와 춘추전국시대이후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이후 3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상고대의 역사를 통하여 형이상학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상고대의 형이상학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본다.

II. 상고대 인간 삶의 강령은 무엇이었나?

중국의 역사는 기원전 25세기 이전으로 추정되는 삼황·오제의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¹⁾ 그 이후는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와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 한나라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이들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삼황·오제와 한나라시대는 이야기로 전해져오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중국의 역사서인 『서경』과 『사기』는 오제시대에 관한 내용부터 기록해 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통해 상고대 사람들이 무엇에 의지했으며,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 삶의 강령(綱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들 내용 안에서 형이상학의 요소를 찾아본다.

1. 오제(五帝)시대

오제시대는 다섯 명의 왕(제帝)이 통치했던 시대를 말하며 그 연대는 기원전 약 24세기에서 기원전 21세기 사이로 추정된다.³⁾ 이 시대에 통치한 오제는 황제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인 전욱, 곡, 요, 순이다.⁴⁾

1) 평우란, 『간편한 중국철학사』, 정인재 옮김 (서울: 형설출판사, 2007), 11.

2) 김영환, 『사기1』 (서울: 경인출판사, 2013), 33.

3) 평우란, 『간편한 중국철학사』, 11. 이기석 역해, 『서경』, 이가언 감수 (서울: 홍신출판사, 2007), 16.

4) 오제는 태호, 연제, 황제, 소호, 전욱 이라고 여기는 주장도 있다.

가. 황제黃帝시대.

중국 역사서에 통치자로서 맨 처음 기술된 황제黃帝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운 면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제帝라는 단어가 ‘뛰어남, 최고’를 의미하고 있지만 신령스러움은 ‘사람의 경지를 벗어난 신비하고 경이로운 수준’을 말한다. 그 무렵 부족 지배자였던 신농씨神農氏의 통치력이 쇠약해지자 제후들이 침략해와 약탈을 했지만 신농씨는 그들을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황제가 군사들을 동원하여 제후들을 정벌하자 그들이 모두 와서 복종하게 되면서 부족국가의 통치자가 되었다.⁵⁾ 그의 치적 중에서 하나는 외부 부족들의 침입으로부터 부락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번식번성하게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하여 조상신을 비롯하여 하늘과 땅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지낸 것이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침략하여 육보이러하자 제후들은 모두 헌원(황제)에게 귀순했다. 헌원은 이에 덕치를 베풀고 동·서·남·북·중의 5방과 목·화·토·금·수 5행의 자연현상에 순응하였으며, 쌀, 보리, 콩, 기장, 피 등 5종류의 곡식을 심게 했다.⁶⁾

그는 자연변화에서 오는 위험을 극복하기위해 천문과 지리를 익히고 개발했다. 상고대 인들은 이 때 이미 “날짜를 헤아리고 역법을 계산했으며, 하늘과 땅의 규율과 음양의 변화와 징조, 삶과 죽음의 의례와 흥망성쇠의 도리에 순응했다.”⁷⁾

황제의 뒤는 손자인 전욱顓頊이 계승했다. 그의 통치내용은 황제의 그것과 유사했다. 전욱의 통치에 대해 『사기』는 “4계절의 운행에 따라서 하늘의 도리를 본받아 행동했으며, 귀신의 활동에 따라서 의례를 제정했고, 오행의 규율을 익혀서 백성을 교화했으며,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기술했다. 이때에 통치자는 하늘과 조상의 신에 대한 제사와 자연의 변화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전욱의 뒤는 그의 아들 곡궤이 계승했다. 그의 통치와 관련하여 『사기』는 “해와 달의 운행을 관찰하여 역법을 수정하고 초하루, 보름, 그믐 등을 맞이하고 보내게 하였다”라고 기술했다. 이로써 황제 이후 전욱과 곡의 시대에 천문과 역법 등 자연의 변화와 질서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와 발전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나. 요堯·순舜 시대

먼저 요堯는 곡의 아들로서 그의 인덕은 하늘처럼 넓고 높았으며, 지혜와 지식은 신과 같았다.⁸⁾ 그는 통치를 하면서 천문역법을 관리하는 기관을 두고 하늘의 법칙에 순응하고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이치를 관찰하여 역법을 제정했으며, 그 내용을

5) 김영환, 『사기1』, 33.

6) 『사기』 5제본기 “炎帝欲侵陵諸侯，諸侯咸歸軻，軻乃水德振兵，治五氣，藝五種，撫萬民，度四方，黜犴狝獮虎。” (김영환, 『사기1』, 35.)

7) 김영환, 『사기1』, 40.

8) 『사기』 5제본기, “帝堯者，放勳，其仁如天，其知如神。” (김영환, 『사기1』, 35.)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4계절과 관련된 내용을 본다.

“동쪽의 천문역법을 관장하는 관리인 회중에게 명령하여 동쪽 이민족의 지역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이곳은 양곡이라 일컬었다. 경건하게 해가 뜨는 것을 맞이하고, 백성들에게 질서 있게 봄철에 경작할 농작물을 적당히 배분하였다. 춘분저녁에 28수宿에서 남방주작 7수의 별자리인 성조가 나타나면 이것으로써 춘분을 바르게 확정하였다. 백성들은 경작지로 분산되어 농사를 짓고, 새와 짐승들은 부화하고 교접하였다.”⁹⁾

이 같은 일을 계절별로 하도록 했으며, 1년을 366일로하고 윤달을 두어 오차를 조정했다.¹⁰⁾ 이 내용을 통하여 천문역법을 개발하고 관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고, 28수宿 등을 통하여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와 오행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요의 시절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홍수관리였다.

“오! 사방제후의 우두머리들이여 홍수로 물이 세차게 흘러들어 하늘에 까지 이를 정도이고, 거대한 물줄기가 산을 감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 아래쪽의 백성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누가 능히 가서 홍수를 다스릴 사람이 없겠느냐!”¹¹⁾

요는 곤鯤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치수 일을 시키고 9년 동안 기다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여건아래에서 그는 자기 후임자 선정기준을 ‘하늘의 명(천명天命)’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두었다. 요는 천명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 순舜을 골랐다. 그는 자기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보내면서까지 순의 됃됨이를 살폈고, 30년 가까이 통치 훈련시켰다. 마침내 요는 순에게 정치를 대신하도록 했고, 자신은 순이 하는 일들이 천명에 부합되는지 만을 관찰했다.

이들 내용을 통하여 요가 얼마나 천명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천명의 영향이 컸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순은 요의 뒤를 이어 통치를 훌륭히 했다.

“순은 이에 선기와 옥형 등 옥으로 만든 천문관측기계를 사용하여 해·달·목성·화성·토성·금성·수성 등 7정의 운행이 올바른지 살폈다. 그리고 상제에게는 군대가 주둔하는 곳의 실내에서 행하는 유 제사를 지내고, 하늘·땅·동·서·남·북 등 6종에는 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피워 올리는 인 제사를 지내고, 산과 강에는 멀리서 바라보며하는 망 제사를 지내고, 여러 신들에게는 제물을 골고루 나누는 변 제사를 지냈다.”¹²⁾

9) 『사기』 5제본기 “分命羲仲，居郁夷，曰暘谷，敬道日出，便程東作，日中，星鳥，以殷中春，其民析，鳥獸字微。”(김영환, 『사기1』, 57-58.)

10) 김영환, 『사기1』, 57-58.

11) 『사기』 5제본기 “堯又曰 嗟，四嶽，湯湯洪水滔天，浩浩懷山襄陵，下民其憂，有能使治者。”(김영환 『사기1』, 61.)

12) 『사기』 5제본기 “舜乃在璇璣玉衡，以齊七政遂類于上帝，禋于六宗，望于山川，辨于群神。”(김영환, 『사기1』, 66-71.)

순舜 역시 천문역법과 제사를 중요시했다. 그 당시 천문역법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7요七曜인 일·월·목·화·토·금·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4계절과 달月과 날짜를 역법에 합당하게 했다.¹³⁾ 『사기』는 여기서 ‘상제上帝’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상제는 하늘의 명을 내리고 집행하는 존재를 의미했다. 순은 그 하늘에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음악과 악기를 개발했고, 시를 장려하여 하늘과 땅에 일치 화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순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치수를 우禹에게 맡겨 9개의 산을 개척했고, 9개의 연못과 9개의 하천을 터서 물길을 소통시켰다. 그리고 순은 그의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요처럼 자신의 혈족대신에 치산치수의 과업을 성공리에 마친 우를 상제에게 미리 추천했다.¹⁴⁾

2. 하夏나라 시대

하夏나라는 기원전 21세기에서부터 기원전 17세기까지 400여 년 간 존재했던 나라로 알려졌다. 하나라의 시조 우禹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순에 의해 치수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등용된 관리였다. 우왕은 요 시절 치수사업을 담당하였던 곤鯀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이 치수사업을 주로 물을 막는 방법으로 했던 반면에 그는 물길을 열고 터서 작은 물길은 큰 물길로 이어주어 하천에 연결되게 했고, 하천과 하천 간에는 상호연결이 이루어져 결국 바다로 빠져나가게 했다.

그의 뒤를 아들 계啓가 이어받으면서 세습제가 정착되었고, 이로써 하후夏后씨의 나라인 ‘하夏나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라시대에 관한 기록에서 우왕의 치산치수이외의 내용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행관련 사항이다. 우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가 백성들의 삶에 밀접한 6가지 물자를 잘 다스렸다는 내용이 있다.

“온 세상의 제후와 백성들이 한 결 같이 임금을 받들고 백성의 삶에 밀접한 여섯 가지 물자 즉, 물·불·쇠·나무·흙·곡식 등을 잘 다스렸다”¹⁵⁾

이들 중에서 곡식을 제외한 물·불·쇠·나무·흙은 오행의 성질을 나타내는 목·화·토·금·수이다. 오행이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물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천명관련 내용이다. 우의 후계자로 그의 아들 계啓가 세습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며 대항하는 제후들이 생겼다. 이에 계가 그들을 정벌하기위해 군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천명에 의해 전쟁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13) 『사기』 5제본기 “습時月正日.” (김영환, 『사기1』, 66, 76.)

14) 『사기』 5제본기 “舜乃豫薦禹於天.” (김영환, 『사기1』, 103-104.)

15) 『서경』 하서 “四海會同, 六府孔修, 庶土交正.”, 이기석 백연옥 역, 『서경』 (서울: 홍신문화사, 2014), 116.

“오! 6군의 군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맹세하며 말하겠다. 유효씨 부락이 4계절의 성대한 덕에 의하여 실행되는 정치를 난폭하게 업신여기고, 하늘과 땅, 사람의 바른 도리를 업신여기며 등한시 하였으니, 하늘이 그들의 운명을 멸망시킬 것이다. 현재 나는 하늘의 처벌을 받들어 실행할 것이다. 전차의 왼쪽에서 화살을 쏘는 군사가 화살을 잘 쏘지 못하고, 전차 오른쪽에서 창으로 공격하는 군사가 임무를 잘하지 못하면 그대들은 하늘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¹⁶⁾

그리고 이 시대에 천문역법의 발달내용과 그 것을 얼마만큼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하나라 중강왕 재위 때에 정치가 문란해지자, 관료들의 근무가 태만해졌다. 이에 그들을 징벌하기위하여 죄상을 밝힌 내용이다.

“중강왕 재위 시에 천문역법을 관장하는 희씨와 화씨가 술과 여자에 빠져,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절과 밤과 낮 등 자연현상과 관련한 직분을 등한시하고, 갑·을·병·정 등 10간과 12지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윤후가 가서 그들을 정벌하였다.”¹⁷⁾

관료들이 역법관련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십간십이지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하여 십간십이지제도가 이때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며, 또한 통치의 중요한 대상이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농사와 역법에 관한 문헌인 ‘하소정夏小正’¹⁸⁾이 후대의 공자孔子에게 알려졌고, 그에 의해 정리되어 오늘까지도 전해오고 있다.

“공자가 하나라의 4계절의 변화를 기록한 역법 책을 바로 잡아서, 학자들이 대부분 하소정의 내용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¹⁹⁾

이렇게 기후, 즉 자연의 변화와 그 질서는 당시 하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들에게 의해 철저히 관찰되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하나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덕치가 약해져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쇠락해졌다. 결桀왕이 말희末喜라는 여인에 빠져 덕치에 힘쓰지 않고 무력으로 백성과 백관들을 해쳤다. 그러는 중에 탕湯이라는 신하가 덕을 행하자 민심이 기울어 제후들이 탕에게 귀의하게 되었고, 결국 탕이 군사들을 이끌고 결왕을 정벌하는 역성혁명인 ‘탕무혁명湯武革命’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라는 멸망했다.

16) 『사기』하본기 “嗟，六事之人，予誓告女，有扈氏威侮五行，怠棄三正，天用勳絕其命，今予維共行天之罰，左不攻于左，右不攻于右，女不共命，御非其馬之政，女不共命，用命，賞于祖，僇于社，予則帑僇女。” (김영환, 『사기1』, 191-194.)

17) 『사기』하본기 “是爲帝中康，帝中康時，羲，和湮淫，廢時亂日，尹往征之。” (김영환, 『사기1』, 197-198.)

18) 중국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과학문헌 중의 하나이고 또 농사와 역법에 관한 문헌으로, 원래는 『대대예기』 중의 제47편이다. 이 책은 경과 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고, 전체400여 글자로 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1년 12개월에 따라서 매월의 기상, 별자리와 중요 생산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있다. 이 책은 당시 농업생산 즉, 곡물, 섬유식물, 염료, 원예작물의 재배 등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1월과 12월의 별자리에 관한 기록이 없고, 4계절과 24절기의 개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환, 『사기1』, 207.)

19) 『사기』하본기 “孔子正夏時，學者多傳夏小正云。” (김영환, 『사기1』, 205-208.)

3. 상(은)나라 시대

상나라는 기원전 17세기에서 기원전 11세기에 걸쳐 600여 년 동안 존속한 나라였다. 상나라시대의 통치내용은 갑골문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상나라는 은殷나라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제 17대 임금 반경이 도읍을 은殷땅으로 옮긴데서 비롯되었다.

상나라 시조 탕湯왕은 비록 하나라의 걸왕을 정복하고 나라를 새로 세우기는 했으나 걸왕의 신하였다. 신하가 왕을 정벌한 최초의 역성혁명가로서 그는 천하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가 두려웠다. 따라서 그는 당시 정벌의 필요성 등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다. 그래서 작성한 것이 ‘탕서湯書’였으며, 그 내용은 정벌이 하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탕이 말하길 ‘여러분, 이리로 오시어, 내말을 들으시오. 내 자신이 감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에 많은 죄악이 있으며, 나도 여러분도 하나라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하늘의 상제上帝를 경외하여 감히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하나라는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천명으로 그들을 처벌할 것이다.’”²⁰⁾

탕왕은 즉위한 후 나라의 각 제도를 정비했다. 그것들 중에는 1년의 시작을 12월로 하는 역법이 있었다.²¹⁾ 그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로지 상제의 마음을 살펴 실행’했다. 이 같은 정책의 추진으로 상나라 시대에는 하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실행하기위해 점占과 복卜이 성행했다.²²⁾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점을 쳐야했으며 이를 위해 점치는 자를 관리로 임명했다.²³⁾ 이 점의 효력은 천명을 뒷받침하고 알리는데 유용한 수단이었다. 예컨대 제 17대 임금 반경이 도읍을 은殷땅으로 옮기려할 때 백성들이 따르지 않자 이는 하늘의 뜻이며, 점으로 그 뜻을 확인했다고 설득했다.

“반경이 은으로 천도하려하자 백성들이 그곳에 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에 신하들을 시켜 백성들을 설득하게 했다. 이들은 말하길 ‘우리 왕이 이곳으로 와서 사시게 된 것은 백성들을 중히 여겨 모두 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려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점을 쳐 천도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보았는데 천도가 좋다는 점괘를 보고 하늘의 뜻도 나와 같다고 말했다.’”²⁴⁾

20) 『사기』 은본기 “湯曰 格女衆庶，來女悉聽朕言，匪台小子敢行學亂，有夏多罪，予維聞女衆言，夏氏有罪，予畏上帝，不敢不正，今夏多罪，天命極之，今女有衆。” (김영환, 『사기1』, 232-236.)

21) 『사기』 은본기 “湯乃改正朔.” 하나라의 역법은 동지이후 두 번째 달을 정월로 했었다. 상나라 역법은 탕력, 은력, 상력 등으로 일컫는다. 그 역법은 과학적이며 음양합력을 사용하였다. 또 간지로 날일을 기록하였고, 태음으로는 월을, 태양으로는 년을 기록했다. 태음과 태양의 시차를 조정하기위해서 윤월을 두어 12월 다음에 13월이라 하였다가, 나중에는 1년의 중간에 두었다. 상나라역법은 나중에 중국 전통역법의 제정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김영환, 『사기1』, 243- 245.)

22) 점占은 숫자로서 괘를 구하는 것이며(極數知來之謂占), 복卜은 거북의 등껍질, 소의 뼈 등 도구를 사용해 괘를 구하는 방법이다.

23) 『사기』 은본기 “河奭甲崩，子帝祖乙立，帝祖乙立，殷復興，巫賢任職。” (김영환, 『사기1』, 256.)

“상제가 비를 내리도록 명령하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도록 명령하겠습니까?” “다음 날 계묘癸卯일에 상제가 아마도 바람을 불도록 명령하겠습니까?”²⁵⁾

이렇게 왕권과 하늘의 뜻이 강하게 결합되어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상나라정치의 특성이다.²⁶⁾ 왕은 상제를 대리하는 자로서 상제의 뜻을 빌려 통치 권력을 강화했다. 상제의 뜻을 아는 데 점이 필요했다. 상제는 국가의 중요 사안에서부터 기후 변화 등 백성들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여하튼 반경왕은 이와 같은 점占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확인하고 도움을 은²⁷⁾으로 천도했다. 이때가 기원전 1384년경이며, 이를 기점으로 그 이전을 상나라로, 그 이후를 은殷나라라고 부르게 되었다.²⁸⁾

상나라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주紂왕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달기姐己’라는 여자에 빠져 정치를 멀리했다. 이에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하늘이 이미 상나라의 운명을 끊으려고 하니, 천지길흉을 잘 아는 현인의 관찰과 큰 거북이의 점괘를 보아도 감히 길한 것을 알 수 없고, 조상이 우리 후손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며, 오직 왕이 음란하고 잔혹하여 스스로 하늘의 명의 끊어버리니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어찌 천벌을 내리지 않으며, 천명이 어찌 이르지 않는가?’라고 했다.”²⁹⁾

이렇게 신하들이 하늘의 명령과 점괘를 근거로 천벌이 주왕에게 내리게 될 것을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각성을 촉구했다. 그래도 주왕은 “내가 태어난 것이 바로 천명에 순응하고 따른 것이 아닌가?”하면서 그들의 간언을 거부했다. 결국 주周나라 무武왕의 정벌을 맞으며 그와 상나라는 멸망했다.

4. 주周나라 시대

주周나라의 시조는 후직后稷이며 이름이 기棄였다. 후직은 요堯시절의 농업담당 관리였으며,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오면서 상나라 말년에 문文왕에 이르게 되었다. 문왕은 당시 쇠퇴해가던 상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덕치를 실현하는 자로 알려

24) 『서경』 반경 상 “盤庚遷于殷，民不適有居，率籲衆慙，出矢言。曰 我王來，既爰宅于茲，衆我民，無盡劉，不能胥匡以生，卜稽曰 其如台，先王有服，恪謹天命，茲猶不常寧，不常厥邑，于今吳邦。今不承于古，罔知天之斷命。” (이 가원, 『서경』, 187-188.)

25) 황준연, 『신편 중국철학사』 (서울: 심산출판사, 2007), 50.

26) 김영환, 『사기1』, 256.

27) 새 도읍지 은 지역은 지금의 하남성 안양현 소둔에 있는데 이곳에서 갑골문이 발견되었다.

28) 은殷 지역은 농업에 적당한 땅이었다. 이에 그 나라의 경제가 풍족해짐에 따라 정치도 공고해졌으며 문화발전도 빨랐다. 현재 전해진 상나라의 기록과 사료들은 모두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이기석 백연옥 역, 『서경』 186.)

29) 『사기』 은본기 “天既訖我殷命，假人元龜，無敢知吉，非先王不相我後人，維王淫虐用自絕，故天棄我，不有安食，不虞知天性，不迪率典，今我民罔不欲喪，曰 天曷不降威，大命胡不至。” (김영환, 『사기1』, 284-287.)

져, 많은 제후와 백성들이 그에게 물려들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주紂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유명한 주역周易을 만들었다. 그는 주역의 괘를 8개에서 64개로 늘렸고, 법제를 바꾸면서 아울러 1년의 시작을 11월로 하는 역법도 개발했다.³⁰⁾

문왕의 뒤를 이은 무武왕은 은나라의 주紂왕을 정벌하였다. 이때가 기원전 11세기였으며 주나라(서주西周)시대가 시작되었다. 무왕 역시 그 정벌의 명분 찾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라고 했다. 그는 은나라 정벌을 마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다음의 축문을 지었다.

“상나라의 마지막 후손이고 을왕의 셋째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주왕은 선왕의 밝은 덕치를 없애버리고 신령을 업신여기고 알바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상나라 도읍의 백관들에게 어리석고 사납게 행동하니,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늘에 계신 상제로 하여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왕은 두 번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길 ‘도탄에 빠진 상나라를 바꾸라는 천하의 명령을 받아서 상나라를 개혁하여 없앴으며,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들입니다.’”³¹⁾

무왕이 정벌 후에 각종 제도를 바꾸고 영토를 분할하여 제후들을 책봉하고 봉건 제도를 실시했다. 주나라 초기에는 노, 진, 위, 연 등과 같은 큰 제후국을 비롯하여 작은 제후국은 40여개에 달했다. 그리고 도읍지를 낙읍으로 지정했고, 군대를 해산하여 덕치에 힘썼다.

이를 위해 무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으로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들었다. 이 법은 후대 동양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서경』은 이 법도 하늘이 가르쳐 준 것으로 기술했다.

“곤鯤은 죽음을 당하였고, 우禹가 뒤를 이어 일어나자 하늘은 우에게 9가지를 줌으로써 평소의 인륜의 도리가 정해졌다고 했다. 첫째, 5행이요. 둘째, 5가지 일을 공경해야 함이다. 셋째, 8가지 정치를 행함이다. 넷째, 5가지 천상역법에 조화함이다. 다섯째, 인군의 법칙을 세워 사용함이다. 여섯째, 3가지 덕을 이용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일곱째, 점을 쳐서 의문을 풀어 밝히는 것이다. 여덟째, 모든 징조를 고려하는 것이다. 아홉째, 5복을 누리고 6가지 곤궁함을 벌하는 것이다.”³²⁾

이들 9가지 큰 법들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첫째(둘째, 넷째, 아홉째 포함)의 오행五行, 넷째의 천성역법天星曆法, 일곱째의 점卜에

30) 『사기』주본기 “西伯蓋卽位五十年，其囚羑里，蓋益易之八卦爲六十四卦，改法度，制正朔矣。”(김영환, 『사기 1』, 332-334.)

31) 『사기』주본기 “殷之末孫季紂，殄廢先王明德，侮蔑神祇不祀，昏暴商邑百姓，其章顯聞于天上帝，’於是武王再拜稽首，曰，‘膺更大命，革殷，受天命令，’”(김영환, 『사기 1』, 353-356.)

32) 『서경』홍범 “鯤則殛死，禹乃嗣歟，天乃錫禹洪範九疇，彝倫攸叙，初一，曰五行，次二，曰敬用五事，次三，曰農用八政，次四，曰協用五紀，次五，曰建用皇極，次六，曰乂用三德，次七，曰明用稽疑，次八，曰念用庶徵，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이가원, 『서경』, 278-280.)

관한 내용이다. 이들 3가지는 왕의 통치와 백성들의 농사 등 삶에 긴요한 것들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 후 무왕이 병으로 눕자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점卜을 쳤으며, 그 점에 나타난 방법을 통해 치유한 결과 그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이야기가 기술되었다.

“신하들이 두려워 경건히 점을 쳤다. 주공은 주변의 사악한 것을 없애는 의식을 거행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였으며, 스스로 불모가 되어 무왕을 대신하겠다고 하니 무왕의 병이 나았다.”³³⁾

한편 주나라 시대에 자연의 질서와 사람의 일을 동일하게 보는 사상이 발달했다. 후대 여왕勵王은 자기의 포악스럽고 오만방자한 사치가 이어져 백성들의 원성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을 탄압하여 그들의 입을 막게 했다. 그러자 신하가 그러한 처사는 ‘물길을 막는 폐단과 같다’하며 왕에게 충언했다.

“이것은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 보다 폐단이 심합니다. 물이 막혔다가 터지면 다치는 사람이 필히 많게 되는 것처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까닭에 치수를 하는 사람은 막힌 것을 터뜨려서 소통하게 해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널리 알려서 말하게 해야 합니다.”³⁴⁾

그리고 하늘과 사람간의 일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사상’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그들은 땅의 지진 등 자연재해를 정치가 잘못된 탓에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이며, 나라가 망할 징조로 보았다. 유왕 2년에 강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신하들이 주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질서를 잃게 되면 백성이 혼란해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그 기한은 십년 이내라고 했다.

“ 무릇 나라의 건립은 산과 강에 의지해야 하는데 산이 무너지고 강이 고갈되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이다. 강물이 고갈되면 필히 산이 무너진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1에서부터 10에서 끝나며, 10이 되면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버림을 받은 나라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³⁵⁾

이와 같은 징조가 사실로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유왕은 포사褒姒라는 웃지 않는 여자에 빠져 왕후와 태자를 폐위시키려 했다. 이에 반발한 왕후의 부친 등이 그를 공격해왔다. 유왕이 전쟁을 알리는 봉화를 올렸으나 제후들은 그 봉화를 허위로 믿고 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 왕과 포사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아들이 등극했고, 도읍지를 동쪽으로 옮겼다. 이때가 기원전 771년이였다.

33) 『사기』 주본기 “群公懼，穆卜，周公乃祓齋，自爲質，欲代武王，武王有瘳。” (김영환, 『사기1』, 369-371.)

34) 『사기』 주본기 “是障之也，防民之口，甚於防水，水雍而潰，傷人必多，民亦如之，是故爲水者決之使導，爲民者之使言。” (김영환, 『사기1』, 406-411.)

35) 『사기』 주본기 “夫國必依山川，山崩川竭，亡國之徵也，川竭必山崩，若國亡不過十年，數之紀也，天之所棄，不過其紀。” (김영환, 『사기1』, 418-421.)

그 이전의 주나라를 서주西周라고, 그 이후를 동주東周라고 불렀다. 춘추春秋시대 로 접어들기 이전인 여기까지가 본 연구에서 정한 중국의 상고대이다.

Ⅲ. 상고대의 형이상학은 어떤 내용인가?

앞에서 상고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힘들어 했고, 중요하게 다루었던 일은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부 적들의 침략을 막으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느냐하는 것이었다. 이에 상고대 사람들은 자연을 극복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존차원에서 찾아야만 했고, 결국 그들은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와 ‘하늘의 주재’함을 미리 알아내고, 그에 맞추어 순응하고 대처하는 일이었다. 그에 관한 내용을 이론화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역경易經』이었다. 이 책은 상고대 형이상학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형이상학 요소 중 오행·십간십이지 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먼저 『역경』에 담겨있는 형이상학과 그 요소들을 살펴본다.

1. 역易은 무엇인가?

‘역易’은 그 개념과 기원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해(日)와 계속 변화하는 달(月)의 합침을 상징한다.³⁶⁾ 그리고 역은 우주만물과 그 변화를 대표하는 천·지·인 ‘삼재三才의 도’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³⁷⁾ 『역경』이 점서³⁸⁾이고, 역은 그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 살아야만하고, 자연은 변화한다. 역은 자연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연은 우주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며, 자연의 생성 및 운행원리도 포함한다. 역에 대하여 『계사전』³⁹⁾이 설명한 주요 사항을 추려본다.

첫째, 역은 천지의 준칙이다.

『역경』이 동양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경전 중의 경전이요, 학문중의 학문이며, 철학중의 철학이다”라는 말로 대변된다.⁴⁰⁾ 이는 사서오경 등 대부분의 사상과

36) 김석진, 『대산 주역강해(상경)』, (서울: 대유학당, 2013), 15.

37) 이러한 역은 존재하는 형태와 그 변화하는 도에 따라 우선 천역天易·서역書易·인역人易으로 나누고, 그리고 변역變易·불역不易·간역簡易으로 나눈다. 이중 앞의 ‘천역’은 천지일월의 운행변화를 말하며, ‘서역’은 복희씨, 문왕, 주공, 공자의 도로써 계승된 경전을 말하고, ‘인역’은 사람이 살아가는 규범을 말한다. 또한 뒤의 ‘변역’은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변화무쌍함을 말하고, ‘불역’은 변화하는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을 말하며, ‘간역’은 이들 원리들이 자연적인 것이라서 지극히 쉽다는 의미이다. (김석진, 『대산 주역강해(상경)』, 16.)

38) 상고대 사람들이 점을 치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풀의 한 종류인 시초蓍草를 배열하고 조합하여 어떤 숫자·부호를 얻어서 이를 근거로 하늘의 뜻을 판단한 것이며, 이를 ‘점占’이라했다. 다른 하나는 거북이의 등껍질과 소, 사슴, 호랑이 등 동물의 뼈를 불에 구운 다음 그 뼈에 갈라져 나타난 무늬의 현상을 보고 하늘의 뜻을 판단한 것으로 이를 ‘복卜’이라 했다. 이들 시초와 거북의 등껍질 등도 신물로 여겼다.

39) 『계사전』은 『역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들, 즉 십익十翼 중의 하나이다.

학문이 『역경』 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역은 천하의 준칙이므로 천지의 도를 모두 포괄한다. 위로는 천문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펴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 근원을 안다. 시작과 끝을 알기에 생사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정기가 물이 되고, 유흠으로 변화하니 귀신의 상황을 안다.”⁴¹⁾

역은 천지의 모든 ‘도’를 포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까지도 그 근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나온 ‘도’는 ‘법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역은 자연과 각 사물의 시작과 끝을 알고 모든 생사를 알고 있으므로 인간의 생사문제도 당연히 안다. 또한 역은 모든 사물이 정기精氣가 변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생성되며, 사물이 사멸된 이후에는 혼魂으로 다시 바뀌는 것 까지도 안다.

둘째, 역은 넓고도 크다.

역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는 너무도 넓어 이에 포괄되지 않는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에 포괄된다. 앞에서 ‘천지의 도’까지도 포괄한다고 했다.

“역은 너무도 커서 멀기로 말하면 한계가 없고, 가깝기로 말하면 고요히 눈앞에 있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있다.”⁴²⁾

역은 천지의 모든 작용을 포괄한다. 그 작용은 음양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데 이에 대한 『계사전』의 설명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乾은 지극히 고요하다가도 움직일 때에는 곧아서 크게 생하게 되며, 땅을 상징하는 곤은 고요할 때에는 오므렸다가 움직일 때는 퍼져 광범위하게 된다. 그 광대함은 천지에 짝하고 변통은 사계절이 짝하고, 음양은 해와 달에 짝하며, 쉽고 간명함은 지극한 덕에 짝한다”⁴³⁾라고 되었다. 역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밤낮과 계절변화가 일으키는 일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그 포괄하는 범위가 크고도 넓다는 것이다.

셋째, 역은 지극하다.

공자가 말하기를 “역은 지극하다”고 했다. 이 말에 의하면 역은 이 세상 모든 학문의 정점이어서 어떤 학문도 이를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도道와 함께한다고 했다.

40)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신원봉 역, (서울: 부키, 2013), 89.

41) 『계사전』 제4장 “易與天地准，故能彌綸天地之道。仰以觀於天文，俯以察於地理，是故知幽明之故。原始反終，故知死生之說。精氣爲物，遊魂爲變，是故知鬼神之情狀。”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87.)

42) 『계사전』 제6장 “夫易廣矣大矣，以言乎遠則不禦，以言乎邇則靜而正，以言乎天地之間則備矣。”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159.)

43)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159-162.(계사전 제 6장)

“공자가 말하기를 ‘역은 과연 지극한 것이다. 역은 성인이 덕을 숭상하고 사업을 넓게 펼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지혜를 높고 원대히 하되 하늘처럼 하며, 실천은 땅과 같이 비근한 데로부터 시작한다. 천지가 자리 잡으니 역이 그 사이에서 행해진다’고 했다. 성성존존은 도의 문이다.”⁴⁴⁾

역은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아주 고귀하고 큰 것에서부터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찮은 일까지 포괄한다. 공자는 이를 지극하다고 했으며, 또한 성성존존成性存存하다고 했다. 이는 ‘도를 얻어 그것과 통하지만 말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⁴⁵⁾

넷째, 역은 형이상학적이며 무위하다.

『계사전』은 역이 아무런 생각과 행위 없이 고요한 상태에 홀로 머무르고 있다가 일단 행위에 들어가면 천하 모든 일을 수행한다고 했다.

“역은 아무런 생각도 행위도 없이 적연부동하다가 일단 감응하면 천하의 모든 이치에 통한다. 천하의 지극한 신묘함이 아니고서 누가 감히 이것과 함께할 수 있겠는가?”⁴⁶⁾

역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지 못하는 적연부동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천하의 모든 이치에 통달할 수 있다. 모든 일이 무위함으로써 이루어지게 한다. 이들은 형이상학의 요소이다.

이상 역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역 또는 『역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 지혜를 알려주는 최고 최대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역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존재로서 자연변화와 그 질서의 원인 등으로 작용함은 형이상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역이 포괄하고 있는 다음의 태극, 도, 음양의 법칙 등은 그 형이상학 요소를 더욱 강화시켜준다.

2. 역이 포괄하는 형이상학 요소는 어떤 것들인가?

가. 태극太極

『계사전』은 역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태극이 있다고 했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며,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는 것이다. 태극은 역의 최초 구성요소이며, 세상 길흉을 결정하는 주체인 팔괘의 근원이다. 이로서 태극은 세상 길흉을 결정하는 주체, 즉 형이상학(자)의 최초 요소로

44) 『계사전』 제7장 “子曰，易其至矣乎？夫易，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知崇禮卑，崇效天，卑法地，天地設位而易行乎其中矣，成性存存，道義之門。”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169.)

45)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175-176.

46) 『계사전』 제10장 “易无思也，无爲也，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非天下之至神，其孰能與於此？”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309.)

여겨진다.

“역에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양의를 낳으며,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 팔괘가 길흉을 결정하며 길흉이 대업을 낳는다.”⁴⁷⁾

여기서 ‘역은 태극이라는 하나가 있어 그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은 넷을 낳고, 넷은 여덟을 낳는다’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다. 우선, 이를 점치는 방법으로 보아 태극은 50개 혹은 49개의 시초蓍草가 섞여 아직 나뉘지 않은 상태이며, 양의는 이들 시초를 두 무더기로 나눈 것이며, 사상은 네 차례에 걸쳐 나눈 것으로 보았다.⁴⁸⁾ 다음, 우주의 형성·작용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 태극은 최고 또는 최초의 실체이며, 양의는 음양이나 천지가 되고, 사상은 춘하추동의 사계절이 되며, 팔괘는 하늘, 땅, 바람, 번개, 물, 불, 산, 연못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다.⁴⁹⁾

이러한 태극은 후대에 ‘도道’와 ‘기氣’ ‘이理’의 구조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역의 구조에서 태극의 위치와 역할은 먼 훗날 송나라 때 주돈이가 주장한 ‘태극도설太極圖說’의 모체가 되었다.

나. 음양陰陽

위에서 “태극은 양의를 낳으며, 양의는 사상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의는 음양이다. 음양은 중국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동양 각국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계사전』은 음양에 대하여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하면서 ‘도를 형이상자(학)’라고 했다. 음양은 천변만화하면서 늘 새로워져 그 변화를 그치지 않고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함이 서로 이어져 영원히 그침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 이것을 ‘역’이라고도 했다.⁵⁰⁾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 “형이상자라는 것을 도라고 한다(是故形而上者謂之道).”

그러나 여기서 음양 또는 작용자체는 형이상학 아니다. 형이상학은 그 음양의 원리 또는 그 작용을 가능하게 한 원인을 지칭한다. 그 근거는 “음양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陰陽不測之謂神”라면서 음양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영역을 신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설명으로 양의는 그 성격상 음양과 같은 의미이고, 음양은 그 작용을 통하여 도와 동일한 의미가 되었고, 또한 형이상학이 되었다고 본다.

47) 『계사전』 제11장 “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325, 345-348.)

48) 주백곤, 『주역산책』, 130-131.

49) 주백곤, 『주역산책』, 130-131.

50) 주백곤, 『주역산책』, 154.

다. 도道

도道는 원래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 중의 하나이다. 『계사전』은 이를 자연변화의 원인이 되는 음양의 작용으로 설명했다. 이는 대립과 조화라는 자연변화의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는 역의 개념을 이어받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를 유지하는 것의 선이고, 이를 이룬 것이 성이라고 하는데, 어진 자는 이를 어질다 라고 하며, 지혜로운 자는 이를 지혜롭다하고 보통사람은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 군자의 도는 드물다.”⁵¹⁾

여기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음양자체가 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음양의 대표자인 밤과 낮 그 자체를 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밤이 왔다가 지나가면 낮이 왔다가 지나가는 이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는 원인을 말한 것이다. 그러한 원인내지 원리를 도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도는 형이상학의 영역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철학에서는 형이상학으로 정립된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중요한 철학저술 중 지식론이나 자연철학 혹은 윤리학 관계전문 논저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중국인은 예로부터 지와 행, 이론과 실천, 사상과 생활의 합일을 중시했기 때문에 철학을 영역별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⁵²⁾ 그러한 중에 『계사전』은 형이상학으로서의 도에 대해 설명했다.

“건곤은 역의 핵심이다. 건곤이 서 있으니 변화가 그 가운데 있다. 건곤이 훼손되면 변화를 볼 수 없다. 변화를 볼 수 없으면 건곤도 거의 그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형이상形而上이라는 것을 ‘도’라 하고, 형이하形而下이라는 것을 기器라고 하고, 변화시키고 잘라버리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밀어붙여 실행하는 것을 통通이라 하며, 그 것으로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을 사업事業이라 한다.”⁵³⁾

여기서 건곤은 하늘과 땅, 즉 음양을 지칭한다. 역의 중심은 음양의 원리를 통해 드러나며 음양이 작용하면 만물의 생성과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음양의 활동을 통해 그것들의 근거가 되는 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 『계사전』 제5장 “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也，成之者性也，仁者見之謂之仁，智者見之謂之智，百姓日用而不知，故君子之道鮮矣。”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125-127.)

52) 이진, 『중국의 형이상학』, 141-142.

53) 『계사전』 제12장 “乾坤其易之緼邪，乾坤成列，而易立乎其中矣，乾坤毀則無以見易，易不可見，則乾坤或幾乎息矣，是故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化而裁之謂之變，推而行之謂之通，舉而措之天下之民謂之事業。”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355-357, 364-368.)

라. 천天(하늘)

상고대 사람들이 역의 원리를 이용하여 점을 치면 그들이 원하는 해답을 제시해 줄 권위 있는 주체가 필요했다. 그 주체가 바로 하늘인 천이고 천에서 나온 명령이 천명이었다. 『역경』은 점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 또는 천명을 알기위해 작성되었다. 천 또는 천명은 세상을 주재하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형이상의 존재자였다.

“역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도우니 길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돕는 것은 순리이며, 사람이 돕는 것은 신의이다. 신의를 행하면서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어진 이를 숭상하니, 하늘이 도와 길하지 않음이 없다’고 했다.”⁵⁴⁾

이 내용에서 공자는 ‘인간의 노력이 선행해야 하늘의 도움이 있다’라는 그의 종교관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하늘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인간사에 도움 등을 주는 자로 존재함을 전제했다.⁵⁵⁾

상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섬기는 내용과 방법은 나라별, 시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기』와 『서경』은 그 내용들을 표시하면서 상제上帝, 황상제皇上帝, 제帝, 천天으로 사용했으며, ‘하늘의 뜻’도 제명帝命, 천명天命, 천도天道, 천심天心, 천의天意, 천벌天罰, 상제의 진노上帝之震怒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하늘’의 권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되었음은 확실했다. 당초 ‘상제上帝’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임금을 선정하여 통치를 하게 했음에도 하나라의 걸왕과 상나라의 주紂왕과 같은 폭군이 나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까지 망치게 한 것을 보면서 상제의 뜻과 능력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주나라시대에는 하늘사상이 ‘상제’에서 ‘천’으로 바뀌었다. 그 후 주나라의 유왕마저 걸왕과 주왕의 전철을 밟으며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나라를 춘추시대로 돌입하게 하면서 ‘천자’와 더불어 ‘천’의 권위도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그러한 중에도 상고대 사람들에게 상제(천)는 신神 또는 귀신鬼神과는 구별되는 지존의 존재였다. 상제에게는 신神⁵⁶⁾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천신天神이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땅에 대응하는 공간적 의미를 지닌 창공에 있는 신을 가리켰다.

3. 오행·기·십간십이지

오행·기·십간십이지 등에 대하여 『계사전』이 직접 설명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원리는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도 후대의 사상과 문화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54) 『계사전』 제12장 “易曰, 自天祐之, 吉无不利, 子曰, 祐者助也, 天之所助者順也, 人之所助者信也, 腹信思乎順, 又以尚賢也,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也.”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355-359.)

55)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357-359.

56) 상고대에 신이란 경외의 대상인 자연인 하늘(공중)·땅·만물과 죽은 사람을 표시하는데 사용된 용어로서 사람의 경지를 벗어나 오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고대 이들의 형성과정을 『사기』 등을 통하여 살펴본다.

첫째, 오행五行사상과 관련하여,
오행사상은 천지만물과 그 작용 그리고 인간 신체부위의 작용 등을 그 속성에 따라 물·불·쇠·나무·흙의 5가지 성질로 분류한 것이다.

“水는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적시는 것이며, 火는 이른바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고, 木은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하는 것이고, 金은 좃으며 변하는 것이고, 土는 심고 거둘 수 있음을 말한다.”⁵⁷⁾

오행사상에 대한 기록은 황제黃帝시대부터 있었다. 『사기』는 황제시대의 일을 기술하면서 “현원은 이에 덕치를 베풀고 동·서·남·북·중의 5방과 목·화·토·금·수 5행의 자연현상에 순응했으며, 쌀, 보리, 콩, 기장, 피 등 5종류의 곡식을 심게 하였다”라고 언급했다. 그 후 하나라시대에는 우임금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가 백성들의 삶에 밀접한 6가지 물자를 잘 다스렸다는 내용이 있다. 『서경』 하夏서에서 “온 세상의 제후와 백성들이 한 결 같이 임금을 받들고 백성의 삶에 밀접한 여섯 가지 물자 물·불·쇠·나무·흙·곡식 등을 잘 다스렸다”라고 했다. 이들 중에서 곡식을 제외한 물·불·쇠·나무·흙은 기氣의 성질로 오행의 목·화·토·금·수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주나라시대에는 문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홍범」 구주九疇를 만들었는데 그 9개 범조항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내용이 오행이었다. 그리고 오행사상 관련된 내용이 4개 조항이나 있었다.⁵⁸⁾

오행의 형이상학 요소는 이들이 ‘기의 성질(값)’을 나타내면서 상호 ‘상생상극의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오행이 계절을 나타내면서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데에도 있다.

둘째, 기氣 사상과 관련하여,
상고대에 형이상학측면에서 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항이 아니었다. 기의 개념은 음양과 오행보다 나중에 발달했다.⁵⁹⁾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의 개념이 확대되어 만물의 생성과 변화작용에 영향을 주는 존재 또는 그들 물질의 최초원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기 개념이 최초에는 자연 현상 등을 나타내는 소박한 의미를 지녔으나 이것이 ‘음양’과 ‘오행’의 개념과 통합된 구조를 이루고, ‘십간십이지’에 의해 그들 작용의 방향 등을 파악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이론이 커지고 중요하게 발전되었다.

기가 글자로 나타난 것은 상나라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갑골문에 ‘기우기雨’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氣’는 ‘바라다’ 또는 ‘이르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

57) 『서경』 「주서」 홍범장 “水曰潤下，火曰炎上，木曰曲直，金曰從革，土爰稼穡。”

58) 첫째, 5행이요. 둘째, 5가지 일을 공경해야 함이다. 셋째, 8가지 정치를 행함이다. 넷째, 5가지 천상역법에 조화함이다. 다섯째, 인군의 법칙을 세워 사용함이다. 여섯째, 3가지 덕을 이용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일곱째, 점을 쳐서 의문을 풀어 밝히는 것이다. 여덟째, 모든 징조를 고려하는 것이다. 아홉째, 5복을 누리고 6가지 곤궁함을 발하는 것이다.(『서경』 홍범.)

59) 본 연구에서도 오행을 먼저 논하여야 하나 후에 ‘음양이 기와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에 대한 내용을 우선 살펴본다.

었다.⁶⁰⁾ 그러나 상나라의 쇠락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규칙적 문화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기의 의미도 다원적으로 사용되었다. 후대에 기는 설문해자⁶¹⁾에서 “기기는 운기(雲氣)이다”라고 풀이되면서 ‘기’에서 ‘氣’로 바뀌게 되었다. ⁶²⁾ 여기서 운기란 움직여 다닐 수 있고 겹겹이 쌓인 기를 말한다.

이처럼 기의 개념은 초기에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데에서 시작하여 천지만물과 인간의 생사에 관련되는 최초원소 내지 근원으로 까지 진전되었다. 여기에는 기 자체의 개념이외에 음양작용의 원리가 합해져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아래 내용은 기원전 780년경에 주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을 『국어』가 기술한 내용으로서 이를 음기와 양기의 작용 불균형으로 보았다.

“ 대체로 천지의 기는 본래 일정한 위치가 있어 그 질서를 잃지 않는다. 만일 그 질서를 과도하게 잃었다면 이것은 백성들이 착란 시킨 것이다. 양기가 숨어서 나오지 못하면 음기가 눌러서 증발할 수 없다. 이리하여 지진이 발생했다.”⁶³⁾

기의 형이상학 요소는 전국시대에 기·음양·오행사상이 결합되면서 사물변화의 주체로 작용하게 된 데 있다. 천지만물이 기 -음양·오행 포함- 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생사를 비롯한 질병의 발생 및 치유도 기의 변화에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에 대하여, 이는 천문역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라 시대에 이미 천문역법을 관장하는 사람을 두고 관리하였음을 『사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상고대 중국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십간십지체도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십간십지의 사상이 단순한 역법수준에서 발전하여 기의 성질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음양과 오행의 값을 표시하게까지 되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고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이들을 표시해주는 것이었다.

시간과 관련하여,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지난해와 금년은 약 365일을 기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형성 변화한 기의 성질은 다르다. 따라서 일 년 중에서도 예컨대 지난해 1월 중 기의 성질은 금년 해당 월의 그것과 다르다. 그런데 그 기의 성질은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그 순환내용을 십간십이지가 10년, 12년 단위 등으로 알려준다. 이로써 과거는 물론 미래의 순환내용까지 나타내 준다. 한편 공간과 관련하여, 기는 크게 하늘과 땅에서 작용한다. 십간(천간天干)은 하늘에서 작용하는 기의 변화내용을 나타내고, 십이지(지지地支)는 땅에서 변화하는 기의 내용을 표시한다.

60) 장립문, 『기의 철학』, 64.

61) 설문해자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자전으로 중국 후한의 경학자인 허신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 氣는 본래 기름氣麩의 기였다. 『설문해자』에서 氣는 손님을 대접하고 말에게도 꼴을 먹이는 것으로, 뜻은 미미자를 따르고 소리는 기로 났다. 또한 이것은 천자가 제후를 대하는 禮를 뜻하기도 하였다.

63) 『국어』 「주어」 “伯陽父曰, 夫天地之氣, 不失其序, 若過其序, 民亂之也, 陽伏而不能出, 陰迫而不能蒸, 於是乎有地震。” (평유란, 『간명한 중국철학사』, 208.)

이처럼 십간십이지는 기·음양·오행의 각각 및 통합된 내용을 표시해주게 됨에 따라 이들이 형이상학으로 존재하며 작용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그 후에 동양철학 특히 기 철학의 큰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Ⅲ. 마치는 글

중국 상고대 사람들이 지냈던 삶의 강령들을 통해 형이상학내지 그 요소들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시기는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771년까지이며, 왕조별로는 황제로 시작한 오제시대, 하나라,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고 춘추시대로 접어든 때까지였다. 본 연구는 『사기』에 기술된 내용을 주로 이용했다. 이를 통하여 상고대의 상황과 중요 제도·사상의 발생 등을 파악해 주었다. 그때 발명된 천문, 역법, 역易 등의 내용들이 전해 내려와 현재까지도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는 상고대 사람들이 힘들어 했고 중요하게 다루었던 일은 자연재해에서 오는 삶의 위협을 극복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을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했다.

첫째, 자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밤과 낮의 변화는 계절을 변화시켰고, 계절의 변화는 기후를 변화시켜 홍수 등으로 생존을 위협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고대 사람들은 자연변화의 법칙을 읽고 표시하기위한 음양, 오행, 십간십이지, 역법 등을 고안했다.

둘째, 자연과 하늘에 의지하고 기원했다. 자연환경은 상고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대상들은 산, 강, 바다, 땅, 하늘(공중) 등이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숭배대상으로 삼아 각종 신神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신과 조상신보다도 높은 존재가 있다고 여겼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었다. 그 하늘에는 이 세상 모든 일을 주재하는 상제가 있었으며, 그의 뜻을 천명이라 했고, 그를 대리하여 집행하는 왕을 천자라고 했다. 따라서 왕은 하늘이 점지한 자이어야 했으며, 천명을 받아 정치를 했다. 이를 위해 하늘의 뜻을 알아 이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것이 점이었다.

점은 자연의 질서와 하늘의 뜻을 알아내는 수단이었다. 그 점을 치기위해서는 이론과 방법이 필요했다. 그 것을 정리한 것이 『역경』이었으며, 역은 태극, 도, 음양, 천명 등을 포괄했다. 역은 하늘의 뜻, 즉 형이상학적인 존재의 뜻을 알아내는 수단이면서도 그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지녔다. 그리고 『역경』이외에 다른 책들에는 기·오행사상과 십간십이지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다. 이들 역시 형이상학의 요소를 지녔다.

이들 상고대 형이상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형이상학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 둘째, 형이상학이 인간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실사

구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형이상학의 권능이 자연변화와 인간 삶을 주재함에 있었다. 넷째, 형이상학의 권능이 시대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 왔다.

상고대에 형성된 형이상학 및 그 요소들은 당시는 물론 후대 도가의 도 사상, 유가의 천명사상, 음양가의 음양사상 등의 형이상학으로 발전했으며, 이들은 오늘날 까지도 정치, 교육, 의술, 천문, 문화사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문헌

- 갈 홍, 『포박자』, 이준영 해역, 서울: 자유문고, 2014.
김석진, 『대산대학강의』, 경기: 한길사, 2012.
김석진, 『대산중용강의』, 경기: 한길사, 2012.
김영환, 『사기1』, 서울: 경인출판사, 2013.
김대규, 『형이상학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한글, 2009.
남희근, 『주역계사강의』, 신원봉 역, 서울: 부키, 2013.
노재욱, 『노자도덕경』, 서울: 자유문고, 2005.
이기석 역해, 『서경』, 이가연 감수, 서울: 홍신출판사, 2007.
이 진, 『중국의 형이상학』, 최기섭·안은수 역, 서울: 성 바오로, 2001.
장기성,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정창현 외 역, 서울: 청홍, 2008).
장립문, 『기의 철학』, 김교빈 외 역, 서울: 예문서원, 2012.
주백곤, 『주역산책』, 김학권 역, 서울: 예문서원, 2001.
최문형, 『동양에도 신은 있는가』, 서울, 백산서당, 2002.
최진석, 『도덕경』, 서울; 소나무, 2014.
평우란, 『간편한 중국철학사』, 정인재 옮김, 서울: 형설출판사, 2007.
황준연, 『신편 중국철학사』, 서울: 심산출판사, 2007.